



1. 공부방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아버지의 뜻을 세워 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 우리들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한곳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어 Language Center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알아가는 기쁨은 큰 즐거움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장차 이 아이들 중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여 어떤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런지 참 많은 기대감을 줍니다. 그들의 삶과 형편은 참으로 힘겹고 불편한 상황들이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꾸밈 없는 미소는 이들의 삶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듯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되게 아이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게됩니다.



아이들의 즐거움이 마음 속에

오래 오래 남겨 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있어

행복이 더욱 커져 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활동도 열심히!

2. 사람을 세워가는 작은 정성.. 커져가는 큰 사랑..

“키움 공동체”

키움 공동체는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필요한 학습을 지원 해줌으로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사람을 키우며 세워가기 위한 사역 운동입니다.



‘므앙 싸이타니’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진행중인 여러 선생님들도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외곽지역에서 동일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팀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모두 네 가정입니다. 이 네 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과 포괄적인 섬김을 위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각각 주력하고 있는 자신들만의 사역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공동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키움 공동체” 사역**입니다.

얼마 전 ‘2022 ~ 2023년도 키움 공동체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초대 하였고 해당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초대 하여 풍성한 잔치로 약정식을 마쳤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네 가정이 함께 힘써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이번 약정식에는 **총 48명의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유치원 아이에서 부터 ~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세웠습니다. 세워진 이들은 2022. 9 부터 ~ 2023. 8 까지 **1년동안 꾸준한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인 학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세워 짐을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계속해서 세워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3.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세번째 공부방 아 둘 람..

첫번째 공부방은 '에클레시아 공부방'.. 두번째 공부방은 동네 이름을 따서 '우동폰 공부방' 그리고 이제 오픈을 준비 중인 세번째 공부방은 '아들람 공부방' 입니다. 아들람은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때 아들람 굴에는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숨어있었던 곳이고, 그 굴에는 어느순간 환란을 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모든 자들과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었지요. 말 그대로 아들람 굴은 그들 모두에게 피난처요 은신처가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세번째 공부방의 이름을 '아들람 공부방'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올 해 12월에 오픈 하기위해 준비 중입니다.

세번째 공부방을 오픈할 수 있었던 초반의 모든 준비 들은 이 땅 라오스를 위해 함께 섬기는 몇몇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도움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아버지의 채우시는 은혜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완성되지 않은 두 개의 교실 바닥작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채우심을 통해 준비 되었고 조만간 교실 바닥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갑절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팀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네 가정들 중 특별히 저희 가정은 주변의 각 마을 마다 필요한 거점이 되는 위치를 선점하여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공부방 개척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공부방 사역을 위해 궂고 해주세요...

1. 새로 이사 온 시골 지역사회에 잘 적응.정착 할 수 있도록
2. 운영중인 두 개의 공부방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3. 공부방을 통해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고 마땅히 도울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4. 올 해 말 새롭게 오픈 예정인 세번째 공부방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5. 함께 일 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한 영혼을 위해 떠난 장도의 여정..

'비엔티안'에 머물며 알고 지내는 어느 라오스 사람을 통하여 급박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에서 두 가정의 남편들이 폭탄이 터져서 죽게 되었다."**는 다급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 된 두 가정의 엄마들과 자녀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고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으로 부터 장도의 여정이 계획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싸이나 부리'라는 지역으로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라오스 북서쪽 끝 자락의 땅 입니다. 사고를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과 절박한 그 영혼들을 위해 다녀와야 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박 3일간의 시간을 계획 하였고, 차량 운전시간만 총 29시간 이었으며, 왕복 거리는 총 1,114 Km 였습니다. 우기철 이기에 도로는 심각하게 망가져있고 수많은 산사태와, 홍수로 유실된 위험한 도로들과, 굽이 굽이 넘어야 하는 수많은 산간도로들은 너무 힘들어 말이 안나올 지경 이었습니다. 장도의 여정을 다녀오기 까지 소모된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고 엉망이된 차량을 정비하고 손 보는 일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얼마나 잘 한 일인지... 그저 감사하고 감사 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것도 중요한 일중 하나 였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신 깊고도 크신 은혜는 말로다할 수 없는 큰 감격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불쌍한 영혼을 찾으시고싶어서 그렇게 인도 하셨나 봅니다. 할려 ㄹㅇ**



오랜시간 먼 길을 달려 드디어 두 가정의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 마을에 까지 찾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이장은 마을에 들어오기 위한 허가서류를 접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되어 그 두명의 엄마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 하였고, 그들은 1시간 30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그 마을 몽족 ㄱ ㅎ의 중직 리더십 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섬기는 몽족 ㄱ ㅎ의 증축을 위해 어느날 일꾼이 필요하여 다른 집 남편에게 자기를 도와주면 품삯으로 얼마를 주겠다고하여 함께 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콩강을 넘어 이웃나라 '태국'으로 건너가 강둑이 쌓아놓은 건축 자재들을 훔쳐다가 ㄱ ㅎ 증축을 하려 했었던 것 이었고, 태국에서는 빈번히 도둑을 당하는 일이 많아서 공무원은 그 주변에 폭탄을 심어 놓았던 것인데... 결국 두 가정의 남편들은 그렇게 폭탄이 터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이 없고도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 이었고 아버지도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 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은 신ㅇ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가정은 믿ㅇ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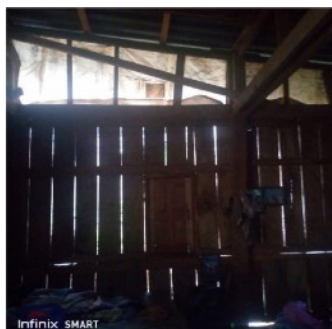
그러나 죽은 중직 리더십의 아내는 믿ㅇ으로 잘 견뎌내고 있었고... 그나마 감사한것은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다른집의 아내에게 전ㅇ하여 지금은 함께 몽족 ㄱ ㅎ에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 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자녀들은 많았고 아이들은 학업 중 이었으나 이 학업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변변치 않아 그들은 산에서 하는 일들로 겨우 먹고 살아가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은 연평균 250만원 정도도 못 미치더군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더니... 한 가정은 지붕이 많이 낡고 깨진것이 많아서 비가오면 힘들다고 지붕수리를 얘기했고, 한 가정은 집 부엌이 밖에 있으나 바람이나 비를 막아줄 벽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 하더군요. 저희는 준비해간

몇가지 물품들을 전해주고 식사를 대접한 두 약간의 오토바이 기름값을 지원하여 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지혜롭게 도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두 엄마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 했던 것 입니다.)



지붕과 측면 사진.



바깥 부엌이 있는 사진.

그리고 함께간 라오스 사람의 집이 그 지역에서 아주 멀지 않았기에 잠시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정도를 달려 도착한 그 집에는 나이드신 노부부 뿐이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부엌 한쪽 바닥에서 초라한 밥상을 차려놓고 쓸쓸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함께간 자기의 아들을 집 떠난 뒤 2년 반만에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움과 보고픔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약에 빠져있었고 삶은 초라함 그 자체 였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부엌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시 시간을 내어 마약에 빠져있는 늙은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갔고 어느순간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복음을 받아 들이셨고 마음으로 긍정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까지 하시더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감격과 감사는 말로 다 표현할 길 없는 은혜였습니다. 긴 여정으로 쌓여진 피로감이 한순간 풀어지는 듯 감사했습니다.



5. 지역민과 아이들을 위한 Vitamin Cafe (비타민 카페)..

생소한 카페이름.. 비타민 카페 ?

세번째 공부방 '아들람 공부방'을 오픈 하면서 함께 추진하려는 카페 이름이 바로 '비타민 카페'입니다. 그러나 이 카페 에서는 커피나 음료가 없습니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카페도 아닙니다. 이 '비타민 카페'는 지역 사람들과 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언제 어느 때이든 '아들람'에 찾아 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비타민'을 공급해주며 비타민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통해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위한 카페입니다.

대부분 좋은 것으로 풍족히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비타민 하나도 큰 사랑이고 도움입니다.

'아들람' 공부방이 잘 준비되고나면 어느 한켠에 다양한 비타민들을 진열해 놓고, 언제든지... 누구든... 찾아와서 비타민을 요청한다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선한 이웃이 되고자합니다. 필요한 비타민은 수도 비엔티안의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혹은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로 혹은 물질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의 운영을 위해서 : 공부방 건물 임대료 (현재 1년 임대료 300만원 정도 = \$ 2,300 USD).

공부방 물품 (칠판, 책상, 의자, TV 모니터, 프린터기, 정수기 등등)

공부방 개척사역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키움 공동체를 위해서 : 대상은 공부방 학생 및 유치원생 부터 ~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학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들이 성장하여 다시 이 터를 섬기는 선순환구조를 지향합니다.

비타민 카페를 위해서 : 비타민을 이곳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나 혹은..

한국에서 비타민을 구입하여 지원 (선박으로 올 경우 대략 한달 소요)

기타 : 추워지는 건기 때 극빈층과 산죽마을을 돕기위한 바자회 의류물품의 지원도 좋습니다.

참고사항 : 사역 패턴의 변화 (저희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가정은 현재 라오스에서 3차 사역을 진행 중 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사역은 ‘지역사회개발사역 및 지역 아동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현장에서 보다 가까이 진행하며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는 지난해(2021년) 말 해당 시골 지역에 작은 집을 짓고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에 새로운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사역 중인 이 지역은 ‘도시와 시골’ ‘종족과 종족’을 연결하는 교량 과도 같은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 나름 비중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한동안 사역을 해왔거나 혹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운영하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많은 부분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로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향후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중첩되는 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역 갈등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역 경쟁

--갈등의 문제로 시작된 관계의 파괴

--해당 지역 내에 서로 같거나 혹은 비슷한 사역 형태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효율적이지 않고 전략적인 접근이 없는 무분별한 사역 전개 등등을 심각한 갈등 요인과 문제점 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역적 접근과, 해당 지역을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온 후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최근 사역의 패턴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역 패턴의 변화는 ‘팀 사역’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있는 일들을 통하여 내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대단한 사역을 통하여 한 후원자나 그룹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는 온전히 가려지고, 전파되고 증거 되는 것은 오직 그 분이면 충분한... 서로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 땅과 지역민들에게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몇몇 가정들과 함께 ‘팀 사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가정은 현재 총 4가정입니다. 각 가정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들이 경험했거나 혹은 새롭게 도전하길 원하는 영역에 대해 오랜 동안 나눔을 가졌고, 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섬겨 가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중 한 가정은 ‘어린이 유치원 사역’을 담당하고

한 가정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한 가정은 ‘복지 문화센터’를 담당하고

마지막 저희 가정은 지역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개척사역’을 담당합니다.

또한 각 가정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위 사역들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사역으로 만들어 가고있는 사역들로는

--**키움 공동체** (=장학금 및 학습지원 / 연령: 유치원 ~ 대학생까지)

--**여성 및 소외계층**(장애, 편부모, 조부모, 소수종족, 극빈가정) **생활지원**

--**급식 보급** (어린 학생들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시락 지원)

--**공방** (생활소품들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여 현지인 생활 자립을 지원)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지역민들의 다급한 물품 및 필요를 지원) 등등의 사역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현재 네 가정이 같은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팀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 네 가정의 팀 명은 “**With 뽕싸이**” 입니다.

“뽕싸이”라는 라오스 말은 =“승리의 빛”이라는 의미 입니다.

함께 믿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네 가정은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의 발 걸음들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가정이 주력하고 있는 공부방 사역에 대하여... >

1. **에클레시아 공부방** --- 위치: '랄 쿠아이' 마을에 위치
(현재 초등학교를 운영중인 한 선생님의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방과 후 공부방으로 운영 중)
2. **우돔폰 공부방** --- 위치: '우돔폰' 마을에 위치
(우돔폰 공부방에서는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Language Center'도 함께 운영 중)
3. **아들람 공부방** --- 위치: '나싸라' 마을에 위치
(현재 준비 중이며, 오픈 예정일은 올 해 12월 중 오픈할 예정)
4. **랄 쿠아이 공부방** --- 위치: '랄 쿠아이' 마을에 위치
(현재 계획 중이며, 오픈 예정일은 내년 3 ~ 4월 중으로 계획 중)

향후 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마을들 중 그 마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해당 마을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부방을 세워갈 예정이며, 대략 6~8개의 공부방을 개척하여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부방은 단순히 공부를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교육'과 '놀이'와 '문화'가 함께 섞여있는 즐겁고 복된 공간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복된 처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원 및 연락방법)

후원 : 하나은행 (920-193077-411) 예금주 - GMS

시티은행 (800-11802-263-01) 예금주 - 송국관

연락 : 070-4829-1907 (070 인터넷 폰), 020-5459-1166 (현지 핸드폰)

카톡 ID (laosam)

